제 2회『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4월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이론을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이자 어떤 광범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이론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핀스커의『자기 해방』은 다음과 같은 말을 모토로 제시하고 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그러한 모토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생략하고 있다. <내가 오직 나를 위한 존재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생략된 말들 속에 내포된 생각을 핀스커가 침묵을 통해 거부하고 있음이 그의 논고에서 제기된 주장의 결정적 전제이다. 핀스커는 그러한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치철학 저작으로서 스피노자의『신학정치론』3장과 16장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나를 위한 정치'는 '나'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도 사람이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내 사람이 먼저인지, 지지하는 사람이 먼저인지, 어느 국가 사람이 먼저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의견인 것이다.

다른 예를 '동물농장'에서 찾을 수 있다.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을 평등하다.'라는 것이
돼지들이 집권한 후 결국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로 바뀐다.

우리는 또한 정치철학과 정치신학을 구분하여야만 한다. 정치신학이란 신적인 계시에 기초

한 정치적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치철학은 타자의 도움 없이 인간 정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말들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는 계시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행동할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한다.
미국인들의 경우, 그들이 행동하는 이면의 가치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철학이란 정치철학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정치철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정치철학**은 나라 혹은 민족과 같은 정치적 결사체가 가장 포괄적인 혹은 가장 권위적인 결사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사회철학**은 이러한 정치적 결사체를 <사회>라는 용어로 명명한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철학은 정치적 결정을 최후로 존중하는 합의로 본다. 법이 존중받는다.
사회철학에서 정치는 사회의 일부로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과학의 관계를 논의하여야 한다. <정치과학>이란 애매한 용어이다. -중략- 자연과학이든 정치과학이든 그러한 과학들이란 솔직히 비철학적이다. 그러한 과학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철학, 즉 방법론 혹은 논리학이다. 그러나 명백히 그러한 철학 분야들이란 정치철학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과학적> 정치학이란 사실상 정치철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이란 가치중립적인가?
과학은 방법이다. 사람이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정치철학이란 의견들 사이에서 지식을 찾는 것이라 과학적 방법을 쓸 수 없다.
사람들의 말은 측정할 수 없다.

정치철학이란 정치적인 것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시도이다. 그것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전에 일단 정치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곧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정치적 의견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것에 의해 점철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의견이란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과는 구분되며, 오류, 추측, 믿음, 편견, 예견 등을 의미한다. 정치생활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의견의 혼합물에 의해 인도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생활에는 정치적 의견을 정치적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어느 정도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들이 수반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숲에서 노루를 좇는(수많은 의견을 듣고 여론을 좇는) 사람이기에 인도자(숲을 보는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치적 지식에 대한 학문적 탐색은 본질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도덕적 충동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지식에 대한 학문적 탐색과 비학문적 탐색의 차이를 어떻게 파악하든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정치적 지식에 대한 학문적 탐색과 비학문적 탐색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 즉, 둘 모두 준거의 중심은 주어진 정치적 상황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어진 정치적 상황이란 각 개인의 조국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식물학자는 이스라엘의 식물군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고 캐나다의 식물학자는 캐나다의 식물군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략- 바로 <여기>와 <지금>이 더 이상 준거의 중심이 아닐 때만이 정치에 대한 철학적 혹은 과학적 접근이 나타난다.

정치적 지식의 인식론적 위상은 목동이나 농부, 장군, 요리사가 소유하는 지식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작업이 목동철학, 농부철학, 군대철학, 혹은 요리철학을 낳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 목표들은 충분히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의 문제는 곧 체계적인 성찰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장군의 목표는 승리이다. 이에 비해 정치가의 목표는 공동선이다.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공동선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논쟁의 대상이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나마 합의하고 있는 유일한 점은 정치철학사 공부의 유용성과 관련된 것이다.

정치철학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대 실증주의의 특징이다. 현대 실증주의는 더 이상 오귀스트 콩트가 창시했을 때 소망했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직도 콩트와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근대과학은 지식의 최고 형태이며 그것이 최고의 형태인 이유는 바로 근대과학이 신학이나 형이상학과 달리 더 이상 <왜냐>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상대적인 지식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다.

오직 사실적 판단만이 과학의 능력 안에 있고, 과학적 사회과학이란 가치판단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가치판단을 전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거나 선언한 사실 속에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나타나는 <가치>하는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는 <가치>란 선호되는 대상들이거나 선호의 원리라는 것 이상을 말하기 어렵다.

시장에서의 가치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원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실증주의 교리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정치철학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하다. 우리는 특히 실증주의의 실제적인 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은 <몰가치적> 혹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인데, 그것은 선과 악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선과 악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이것은 모든 사회과학자들의 공통된 근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연구나 논의를 수행하는 근거가 오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의 해방 과정이나 도덕적 판단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덕적 불감증이 과학적 분석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과학자로서 진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허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 어떠한 목적에도 무관심하거나 목표 없이 표류하는 상태를 좀 더 완벽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된다. -중략- 그러나 사회과학자의 원칙들에 따르면 진리란 선택이 필요한 가치가 아니다. 진리는 선택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과학자들이나 과학 모두 그저 필수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자체가 좋은 것이냐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할 수 없다.

진리란 진정한 이치를 뜻한다. 진리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진리를 수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자신이 진리 앞에 서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